

명품 인도교 개설로 2000만 관광객 유인

전주시,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잇는 오목교 개통

전주한옥마을 관광효과를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등 전주천 너머까지 확산시켜 2000만 전주관광 시대를 열게 만들 명품 인도교가 개통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관광구역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을 연결하는 인도교인 오목교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2일부터 임시 개통했다.

오목교는 차량통행이 금지되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국비 14억

원과 도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이 투입돼 길이 86m 폭 4m 규모로 개설됐다.

전통의 멋을 살린 오목교가 개통됨에 따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전주천 너머로 이어져 국립무형유산원과 남고산성, 관성묘 등으로 연결되는 전주의 새로운 문화유산 탐방 관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옥마을과 전주시 미래유산 1호로 추진중인 서학동예술촌으로 연결되는 인근 남천교에 이어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유산 탐방관문인 오목교가 개통되면서 역사문화 관광구역 확대를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도 갖추게 됐다.

시는 임시개통 후 시설물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과 기타 부대시설 등을 점검한 후 이달 안에 최종 준공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5년 5월 전주천 인도교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스토리텔링 구상을 위한 지역주민 자문과 민간환경단체 등 전문가들과 교량 디자인 등에 대한 회의 및 경관심의를 통해 인도교

디자인 및 교량형식을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인도교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명칭 제정을 위한 시민공모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도교의 명칭을 '오목교'로 결정했다.

안연수 생태도시국장은 "오목교가 전주시 대표 관광구역인 한옥마을뿐 아니라 인근 국립무형유산원, 남고산성 등 문화적, 역사적 관광구역까지 관광객의 외연 확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1일과 2일 도로교통공단 TBN한국교통방송과 함께 드론을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덕진구, 장애인보장구 활용실태 사후 점검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고가의 장애인보장구를 지원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17명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활용실태 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며, 품목으로는 지체, 청각 등 장애유형에 따라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총 66개 품목으로 2분기에는 17개 품목 58종이 지원됐다.

이번 점검은 목창예방방식, 목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보장구의 활용 실태를 점검해 임의로 양도, 훼손, 매매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전동휠체어 같은 이동 장비의 사용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행수칙 준수를 계도하는 한편, 장비의 사용상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청취했다.

/인재용기자

신시가지 내 미개발 학교부지, 주거용지로 공급

전주대학교 신정문 전일고등학교 사이 1만1,794㎡ 규모

폐건축자재 등 불법 쓰레기 투기가 만연했던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미개발된 초등학교부지가 주거용지로 공급된다.

전주시는 전주대학교 신정문과 전일고등학교 사이에 위치한 1만1,794㎡ 규모의 초등학교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서부신시가지 내에는 더 이상 초등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그간 미개발 상태로 존치된 학교용지를 주거용지로

용도를 전환한 후 매각할 방침이다.

해당 용지는 그간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자재와 쓰레기 등의 불법 투기가 빈번하고, 잡초 번식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저하시켜 왔다.

이에, 전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해당 부지에 대한 경관검토와 환경성검토, 교통성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마무리했으며, 관계부서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재용기자

시는 변경된 주거용지의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서부신시가지의 주거용지와 동일하게 건축물의 규모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4층 이하로 각각 정하고 건축물의 허용용도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2층 이상 건축시 1개 층에 한해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후 오랫동안 나대지로 남아있던 부지에 주거용지를 공급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사업 후 커다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부신시가지에 대해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꾸준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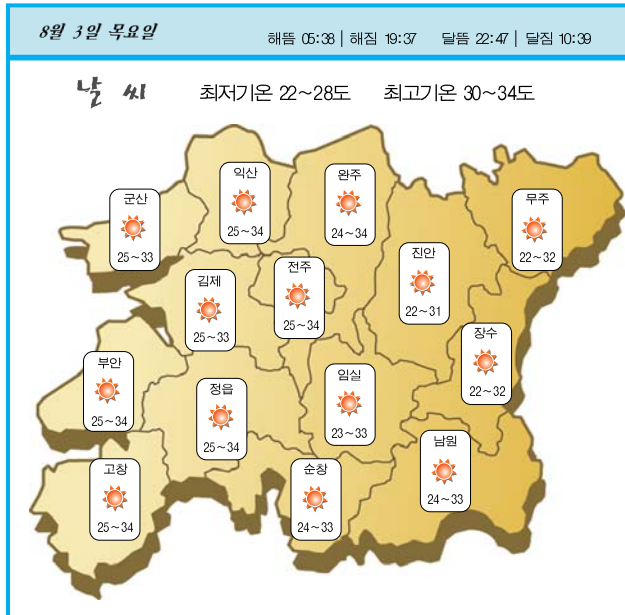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집수리 봉사활동 펼쳐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는 2일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오래된 싱크대와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희망나눔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수리봉사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은 백내장을 비롯한 각종 노인성 질환을 앓으며 어두컴컴한 집에서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집수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송문석 인후3동장은 "새마을협의회가 있어 든든하고 앞으로 뚝에서도 주민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행정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상하수요금 24시간 이사정산 서비스 개시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24시간 언제라도 시민들이 이사를 가는 시점까지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상하수요금 24시간 이사정산 서비스'를 개시했다.

24시간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서비스는 기존의 근무시간에만 납부가 가능했던 이사정산 시스템을 보완해 근무시간 외에도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내 '이사정산신청'에 접속해 상하수도 요금 및 음식물 수료 등을 함께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수용기번호와 이사 시

점까지의 수도사용량 지침을 입력하면 마납요금과 당월요금에 즉시 조회되고 요금 부과가 가능해, 즉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또, 구청에서 부과해 합산 고지되는 음식물 수료료 또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김태수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상하수도요금 24시간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수도요금민원처리로 시민편익 위주의 수도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기자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목포 신항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전북도 학생참여위원회가 3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이 진행 중인 목포 신항을 찾는다.

제4기 학생참여위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전주를 출발해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에 도착, 희생자를 추모한다.

이곳에서는 현재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돌아오지 못

한 미수습자는 5명이다.

학생참여위원들은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묘지로 이동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참여위원들이 세월호 참사 및 5.18 희생자 추모를 통해 인권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키워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